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이종태



'동경 밝은 달에 밤늦도록 노니다가'로 시작되는 신라시대 향가인 '처용가'에 나오는 처용은 설화의 주인공일 가능성을 진하게 풍긴다.

그러나 역사학계에서는 서역계통의 사람이라는 주장을 내놓는다. 이슬람 사람들의 신라에 대한 기록에 따르면 신라 헌강왕이 처용 등 서역인들과 개운포에서 만나 인적·물적 교류를 했다고 전한다. '거처가 허용된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처용(處容)이라는 이름에서도 이방인의 신라 거주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

귀화 동참하는 외국인들

그러나 우리 역사상 '귀화 1호'는 중국 후주 출신 쌍기(雙冀)라는 게 정설이다. 쌍기는 유교문화가 본격적으로 전래되고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에 외교사절로 고려에 왔다가 주저앉은 케이스다. 광종의 참모 역할을 수행하면서 과거제를 도입케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무역이나 인적교류 등으로 그 개방성을 널리 알린 고려조에는 쌍기 외에도 거란·여진족 계통, 일본계 이방인들이 상당수 살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여말선초 여진족을 이끌고 귀화한 이자란은 조선

다문화 가족, 우리 이웃인가?

건국에 기여한 공로로 '청해(靑海) 이씨'의 시조가 됐고, 현재 경기도 포천 추동리

를 비롯해 강원도 이천 월암리, 전북 임실 옥서리 등에 12만여명이 모여 살고 있다.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우리 대표팀을 4강으로 이끈 히딩크의 조국 네덜란드 역시 벨트브레(한국명 박연)와 하벨을 통해 우리와 인연을 맺었다.

이중 박연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네덜란드계 대표'인 홍이(紅夷)포의 조자과 수리, 개조에 상당한 능력을 발휘했을 뿐 아니라 외인부대 장교로도 활약했던 흔적

이 남아 있다. 최근에는 스포츠 스타와 전문직종의 외국인들이 귀화대열에 동참했다. 러시아 출신 축구선수 신의손(49·발레리 사리체프), 중국 출신 탁구선수 당에서 등 스포츠 스타 외에도 일본 출신 호사가 유지 세종대 교수, 영상 디스플레이 분야의 권위자인 러시아 출신 블라디미르 사벨리에프 박사 등이 그들이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에 온 이차자와 부산 사투리의 미국 변호사 하일(로버트 할리)씨는 '독일 이씨' '영도 하씨'의 시조가 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5년 5만여명에 불과했던 국내 거주 외국인 숫자가 지난 5월 110만명을 넘어 우리 국민 전체의 2.2%에 달한다. 50명당 1명이 외국인인 셈이니까, 길거리에서 내국인 만큼 자주 부딪힌다고 해서 이상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다른 나라로 귀화한 한국인도 최근 10년간 17만명을 웃돈다. 이 같은 흐름은 다른 피부색이나 외국문화를 인정해온 한국사의 개방성과 보편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수년 새에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급증하면서 '다문화'라는 용어가 일반화된 상태다. 그러나 다문화에 대한 인식수준은 아직 결핍마 단계에 불과한데다, 편협한 인종주의까지 돌출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경계해야 할 인종주의

단일민족의 우수성을 교육하고 순혈주의를 지향해왔던 우리의 역사와 무관치 않다고는 하나, 서구 편향의 이국주의(Exoticism) 역시 건전한 다문화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출신성분이 좋거나 미국·유럽출신의 이방인의 경우 막연한 동경의 대상이 되는 반면, 동남아 출신 이방인과 2세 가족들이 푸대접이나 따돌림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사례를 주위에서 흔히 본다.

외국인 주민 100만명 시대를 맞은 지금, 우리나라가 명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접받으려면 외국문화를 인정해온 한국사의 보편성을 이어나가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들을 위한 제도와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호기심과 질시의 대상이 아닌 진정한 이웃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사회2부장) jilee@kwangju.co.kr

시설

또 변별력 저하 논란에 휩싸인 2010 수능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지역 수험생들이 약진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광주지역은 수험생들의 최상위권 비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도 상위 등급 비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는 지난 5년간 수능 전국 1위를 차지해 타시도의 집중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2010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이 기대됨에 따라 '실력 광주'의 명예로운 전통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쉬운 수능'으로 상위권과 중상위권 학생 간 성적 변별력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선 학교의 진학지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올해는 수능 응시 인원이 작년보다 7만8천 700여명 증가한데다 주요 대학의 인기학과 정시모집 인원은 축소돼 그만큼 경쟁률이 치솟고 '눈치 작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수능 시험이 너무 쉽거나 어려워 논란을 빚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수리영역을 중심으로 워낙 어렵게 출제돼 학생들에게 부담을 줬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수능 난이도와 변별력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면 변별력은 높아지나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고 무엇보다 사교육을 부추기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시험이 쉬우면 변별력이 약화하는 대신 학습 부담은 완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극심한 사교육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교적 평이한 수능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최근까지의 출제 기조였다.

그렇더라도 매년 치러지는 시험의 난이도 조정이 들쭉날쭉해서야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학 입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극심한 눈치작전을 막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의 난이도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다.

순천시, 정원박람회 재정 감당하겠는가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2013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시의회 등에서 엄청난 사업비로 인한 시 재정 악화

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등을 지적하며 박람회 연기나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시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원박람회의 사업비가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제시한 966억원을 훨씬 넘는 3천 여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관사업을 포함하면 사업비가 이같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이다.

시의회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다. 재정자립도 20%에서 보듯이 순천시 재정은 취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3년간 3천억원의 쏟아부음을 경우 시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신규사업의 가용재원이 줄거나 민생현안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물론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과 연계한 정원박람회의 기대효과는 엄청

하다. 시는 박람회 기간 중 내·외국인 관광객 470만명이 찾고, 1조3천323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6천700억원의 부가가치, 1만1천명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의 예상대로라면 '2013 정원박람회'는 순천뿐만 아니라 전남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시의원의 주장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생각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거창한 규모와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엄청난 열세를 들여 벌인 대규모 사업이 지금은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순천시는 다시 한 번 손익을 철저히 따져 투명한 절차에 의해 정원박람회를 추진해야 한다. 사업비가 시 재정에 왜 부담이 안 되는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경제적 효과는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無等鼓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휴식 시간을 자주 가져라." AP뉴스가 전한 노벨상 수상 비결이다. AP는 올해의 노벨상 수상자들에게 어떻게 해서 그러한 뛰어난 학문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를 인터뷰해 최근 보도했다. 비결은 단 두 가지, 지적 자유와 잦은 커피 브레이크(coffee break)가 전부다.

지적 자유야 창의성이 생기는 학문 연구에서 당연한 선행조건이다. 그렇다면, 커피 브레이크는 노벨상 수상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준 것일까. 화학상을 받은 토머스 스타이츠 박사는 휴식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동료와 토론했던 것이 도움이 됐다고 했다. 그는 1967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간 첫날을 회상하며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는 식사를 하고 차까지 마시면서 언제 연구하는 건지 궁금했지만, 학자들과 차를 마시면서 어떤 실험을 해야 할지를 배웠다"고 했다. 경제학상 수상자 엘리너 오스트롬도 비슷한 경험을 얘기했

다. 학문이 탄탄하게 발전하려면 미래를 상상해내고 최신 연구와 난제를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커피 브레이크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커피 브레이크는 지난 1921년 미국의 '합동커피회보위원회'가 커피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내놓은 아이디어였다. 졸음이 찾아 오는 오후 4시를 전후해 잠시 일을 멈추고 커피 한 잔 하자는 것이었다. 위원회는 3년간 신문 광고를 계속해 '오후 4시=커피 마시는 시간'으로 정착시켰다. 국내에서도 커피 브레이크를 활용한 기업 혁신, 제품혁신 사례가 많다. 한 때 최고의 히트 상품으로 꼽혔던 '임크레 프린터'도 커피 브레이크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상품화했다고 한다.

나쁜 오후가 아니라도 괜찮다. 커피를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 잘 안 풀리고, 갑갑할 때면 차 한잔 앞에 두고 수다를 떨어보자. 휴식 아는가. '대박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지. /김주정 경제부장 jnews@kwangju.co.kr

커피 브레이크



기고

문금주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이란 게 있다. 낙서, 유리창 파손 등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이는 곧 범죄의 부채를 반증하고 잠재적 범죄자를 부추겨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범죄 심리학 이론이다. 가령 빈집에 누군가가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 놓은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집을 방치되어 있는 집이며 자신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깨진 유리창을 빨리

정차로 한쪽 차선을 아예 무용지물을 만드는 시민들도 많아졌다. 운전 중 가래침 뱉기며 담배꽂조나 휴지를 버리는 점잖은 신사답지 못한 풍경도 흔하게 발견된다. 이렇다거 광주의 유리창이란 유리창은 모두 깨지고 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대목이다.

민주도시이며, 문화도시인 광주에 사는 시민들이 모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우직하게 교통신호등을 지키고, 거리의 쓰레기를

당신의 유리창은 온전한가요?

같이 깨우던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1990년대 즐리어나 뉴욕시장과 브래턴 뉴욕경찰청장이 이 이론을 현장에 적용해 악명 높던 뉴욕시의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유명세를 탔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오늘의 광주에도 적용할 수 있다. 우리의 주변에도 언제부터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함으로써 이제는 손쓰기가 늦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무질서

의 현장을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불법주차차가 관치는 간선도로, 불법 광고물이 넘치는 상가, 노상적치물로 점거당한 인도, 교통신호 위반 등이 불법·부당한 것이지조차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느낌이다.

몇 년 전만 해도 가로변 주차차시 남의 이복 때문에 주변의 눈치를 살피던 그러한 모습이 이제는 자신의 당연한 권리인양 하는 꼴볼견으로 탐바꿈했고, 주위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모퉁이 주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한다. 합법적인 주차가 어려운 곳에 갈 때면 아예 차를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생각보다 많다. 문화수도 광주에 사는 시민다운 자제라고 생각한다.

광주는 요즘 2015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지렛대 삼아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야심 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유니버시아드 외에도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해 세계에 문화와 상품을 내다 파는 도시 광주 만들기가.

기아차의 쉐울 같은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향 광주의 우수한 문화를 결집해 세일해야 하고, 민주시민의 성숙한 질서 지키기도 한 몫 끼워 넣어야 할 것이다. 민주니, 선진이니, 인권이니 하는 구호만으로는 안 된다.

요즘 민·관이 한마음이 돼서 벌이고 있는 '교통문화시민운동'처럼 모든 분야에서 기초를 다시 다지는 시민운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당신의 유리창은 온전한가요?" 국제도시 광주의 시민들에게 드리고픈 연 말 인사다. (광주시 감사관)

원인 모르는 '소 근출혈' 농가만 피해

한우를 기르고 있는 축산 농가들은 소 근출혈이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억울하고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은 소의 근육에 피가 통치는 현상인데 근출혈이 생기면 고기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등급관정을 낮게 받으므로 한 마리당 50만 원 정도의 손해를 입는다.

근출혈 때문에 축산 농가들이 번번이 손해를 입는데 그 발생원인을 모르니 예방대책도 없다. 한우 농가의 사육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출하 이통중 트럭 안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계류나 도축과정에서 생긴 문제인지 밝혀줘야 하는 것이다. 그게 만약 사육농가에 잘못이라면 농가들

은 근출혈 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며 대책을 세울 것이다. 또한, 농가 잘못이니 손실도 감수할 수 있다. 하지만, 농가가 아닌 이통중 문제가 이거나 도축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농민들은 당연히 손해보상을 받아야 한다.

일본의 경우 벌써 몇 년전에 근출혈이 발생하자 피해보상을 위한 구제기금과 공제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하루빨리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근출혈 발생이 도축이나 이통중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도 만들어 농민들의 애국

을 피해막아줘야 할 것이다. ▲김일락·보성군 문덕면

은펜클럽

최영태



행정부처의 세종시로의 이전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할 정도를 넘어서 필사적이다. 논쟁의 불을 지핀 정부는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론과 대체도시 건설의 주요 이유로 행정의 비효율성과 국가경쟁력 약화를 들고 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격정하면서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에 대해서는 철저히 눈을 감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도시는 충청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시국가들을 제외하면 방글라데시와 짐바웨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이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인구의 절반이 국토 면적의 11.8%에 거주하고 있다. 이 통계만으로도 수도권에 인구밀도가 얼마나 높을지, 그 부작용이 얼마나 심할지 상상이 되고도 남는다. 오죽했으면 OECD 2006년도 보고서가 서울이 국가경쟁력을 가지려면 인구 과밀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겠는가.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이전에도 수도권 억제책 등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늘어났고, 사회경제적 비용과 모순도 갈수록 심화되어 왔다.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행정부처 이전 계획은 이런 현실에 대한 고민 끝에 나온 일종의 극약처방책이었다. 대부분의 극약처방책에는 일정정도 부작용이 수반된다.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행정의 비효율성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그런데 문제는 현 정부가 부작용만 과대 선전할 뿐 그런 극약처방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것의 긍정적 측면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균형감을 상실한 정부가 아니고서는 이럴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행정부처 이전 문제를 완전히 충청권의 문제로만 국한해서 접근하고 있다. 그들은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에 따른 충청권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한때는 전라도와 경상도 등 다른 지역에 이전하기로 한 공기업까지 세종시로 모아주려 했다. 전형적인 '아랫돌 빼어 윗돌 빼기'

정책에 해당 지역민들이 분노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들의 분노에 놀란 정부가 부랴부랴 혁신도시라는 그대로 추진한다고 말했지만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여야가 합의의 거쳐 법까지 제정하고, 현직 대통령이 선거를 전후로 여러 차례 약속한 행정복합도시 건설도 폐기처분하려 하는데 말이다.

행정부처의 이전은 혁신도시 건설과 기업도시 건설 등 다른 지역균형발전책과 하나의 패키지로 진행되어 왔다. 당연히 행정복합도시 건설 문제는 충청권만의 문제가 될 수 없다. 현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의 의지를 갖고 있되 행정부처 이전의 부작용에 대한 진정한 우려 때문에 원안 수정을 시도했다면 그런 수정계획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행정부처 이전에 비견할만한 획기적(충격적) 지역균형발전책을 내놓았어야 했다. 그런 다음에 행정부처 이전의 문제점을 거론했다면 정부의 의도에 좀 더 많은 진정성이 느껴졌을 것이다.

이제는 앞질러진 불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이다. 정부는 원래대로 행정부처 이전을 비롯한 국토 균형발전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전남대 교수·광주총서단 대표)

광주일보에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클럽'을 수여 합니다. 은펜클럽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결집을 심는 코너입니다.

전광판 등의 홍보용 문구 적절한 단어 사용

시골을 가다 보면 도로변에서 부적절하고 지속한 단어의 홍보 전광판 및 프라카드를 쉽게 볼 수 있다. 모뎀, 여관 등에서 홍보하기 위해 내건 프라카드, 전광판 등에 '환상의 물침대' '무인카운터 운영' 등 부적절하고 지속한 단어가 눈에 쉽게 들어온다. 또 유흥가 주변에는 '여대생 도우미 합시 대기' '예쁜 아가씨 있어요' 등 낯 뜨겁고 지속한

어감의 홍보용 단어가 관을 치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이 언제 어디서든 그런 문구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교육상 좋지 않은 지속한 어감의 홍보용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간관의 제보도 적절히 규제하고, 지속한 표현의 프라카드나 홍보문구도 자체토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안효령·광주시 북구 정동동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